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on Satisfaction with  
Peer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석사 최유진\*

조교수 유계숙\*\*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

Master : Choi, Yu-Jin

Assistant Professor : Yoo, Gye-Soo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dolescent self-esteem,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on th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ith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subjects included students attending a girls' and a boys' middle school in Gongju City. Random sampling was used to pick a class from each of the three grades in the schools. 233 students, who's both parents were living,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in an effort to examine the impacts of student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ir friend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subjects most often used the yielding typ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y, followed by the cooperating, compromising, dominating, and avoiding strategy-type. The girls showed a higher level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han the boys. Girls had high self-esteem and mostly adopted the cooperating typ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followed by the yielding, compromising, dominating and avoiding strategy-type. The boys mostly employed the yielding strategy type followed by the cooperating, compromising, dominating, and avoiding strategy-typ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atisfaction level with friends was high among those who used the avoiding strategy-type less and yielding strategy-type more. Girls were found to have high self-esteem and engaged i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The compromising, cooperating, and dominating types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did not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ir satisfaction with friends.

▲주요어(Key Words)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parent-child communica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갈등해결전략(conflict-resolving strategies), 교우만족도(satisfaction with friends).

\* 주저자 : 최유진 (E-mail : myangel0808@hanmail.net)

\*\* 교신저자 : 유계숙 (E-mail : dongrazi@khu.ac.kr)

##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와 밀접한 상호 관계한 상호관계를 통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개인으로 성장해 간다. 인간과 처음 관계를 맺게 되는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다. 한 개인이 가지는 가족관계는 모든 인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족간의 관계 맺음의 양상은 한 인간의 인간관계 형성의 예언인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박시현, 2003).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하며 애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로서 그 영향력이나 흡수력이 강하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관계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결정적인 관계로서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어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는 가장 가까운 일차적인 교사라 할 수 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 둘 닮아가는 자녀를 통해 그 안에 투영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곧 자녀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알아 가게 된다. 따라서 가정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모와의 언어 습관은 사회성 훈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성의 발달이 촉진되며 더불어 자녀의 자아개념 및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들의 삶에서 부모의 역할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의사소통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김양숙(1995)은 자녀의 성격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언어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에 따라 자녀의 자아개념 및 인간됨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수용 받고 지지 받는다는 느낌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로인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 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Duvall(1965)은 부모와 청소년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확하고 정신건강을 도와주며, 능동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개인에게 수용되고 이해된다는 느낌을 주는 이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신수정, 1994; 신효식·김근화, 2004).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산업 현장이나 조직사회 연구에서 많이 진행되었고, 친밀한 관계 특히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갈등해결방식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이은혜 등, 2000). 이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갈등이 친구와의 갈등보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갈등 해결은 오히려 청소년의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창조적인 문제의 해결, 조직의 응집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등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이나 활동으로 간주(Deen, 2000)되어 왔는데 갈등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다(최창욱·김진호, 2004). 한상철(2000)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대인기술을 갈등협상전략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대인기술이 잘 발달된 사람은 자아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분화하고 그들 자신의 요구를 다른 사람과의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갈등해결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때에 형성된 갈등해결 기술은 앞으로 성인으로 성장하여 이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부모와의 갈등에 주로 초점을 둔 것들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중요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겪는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김지현, 2003; 이주옥, 1992).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국길숙·이미숙, 2004; 김명우, 2003; 김양숙, 1995; 김은주, 2002; 신효식·김근화, 2003; 양봉숙, 2003; 이혜숙, 1998; 장해순·강태완, 2005),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낮으며(노성향, 1994; 이근옥, 2004; 최규련, 1998), 학교생활(노정화, 2002; 서명성, 1998; 이영주, 2002; 이혜강, 2003)과 가정생활의 적응(길예진, 1999; 박은주, 1994)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김경희, 2002; 황경미, 1998)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또래관계에서의 갈등은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격 형성과 또래관계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성장기를 통하여 자녀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므로 부모의 언어

모형과 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성숙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하는 태도, 방식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를 학습해 가며 이는 자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가장 오랜 시간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학교이다. 학교는 청소년기 자녀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상황을 조절해 나가며 적응을 배워 나가는 곳이다. 이러한 배움의 장에서 청소년기의 자녀가 상호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존재는 친구이다.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갈등해결전략들은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따라 자녀들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부모와의 대화에서 학습한 의사소통 유형이 갈등해결전략에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나타남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갈등관리 대처유형에 미치는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들(김지현, 2002; 정미현, 2002; 정선영, 2001; 이희영·천태복, 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들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사소통의 큰 범주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한 보다 직접적인 양육행동으로써 특히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와 자녀간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며 자녀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모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 주제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존중감이나 또래관계, 대인관계 성향등과 관련된 연구는 있어왔으나 부모양육 행동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배선영, 2000; 정미영, 2002; 정선영, 2001; 이희영·천태복, 2005)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백윤미와 유미숙(2006)의 연구와 이희영과 천태복(2005)의 연구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갈등해결전략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성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한제인, 1994; Fonzi et al., 1997)와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김송이, 2001; 배선영, 2000; 정선영, 2001; Chung & Asher, 1996; Rose & Asher, 1999)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이희영·천태복, 2005).

한편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청

소년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연령이 있다. 청소년이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갈등해결전략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예컨대 인지적 수준 및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면서 개인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갈등해결전략 관련연구들은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갈등해결전략의 사용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의 남녀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이희영·천태복,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의 성차와 연령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기의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도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친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보다 더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청소년기 자녀의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의 자녀가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부모교육 및 친구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청소년기 자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써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et al., 198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민하영, 1991).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부모-자녀간의 감정을 정화시켜 서로

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회화 및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Gorden(1975)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카운슬러가 하는 것처럼 수용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그 기술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언어를 통하여 언어에 내포된 의미와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내면화하고 인지적 및 정의적 활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촉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김여가, 1996, 재인용).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2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청소년들의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의문, 오해나 갈등, 그 외 문제들을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이유경, 1988; 정명희, 1988),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간관계 발전과 아울러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 발달을 돕는다는 점이다(국길숙, 2003; 민혜영, 1990; 정혜영, 1987).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부모의 애정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시기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의사소통은 부모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는 청소년들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때,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갈등이 해결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장휘숙, 2001, 재인용). 다시 말해 부모는 권위적 인 태도를 버리고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수평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고 포용 해주며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자녀와 부모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져 서로간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됨 없이 전달하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공동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한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관계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중요시 여겨지며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역할 조망과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 등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박현향, 2004).

##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 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Harter, 1983).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전달되어지는 타인, 특히 부모·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반영적 평가와 자기 행동효과의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사회적 비교과정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 즉, 부모나 교사, 친구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Coopersmith, 1967), 사회적 계층, 민족, 성별, 가족, 신체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김양숙, 1995; 신호식·김근화, 2004, 재인용). 이상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시기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는 시기이므로 전보다 자녀와의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고 서로간의 세대차로 인한 부모-자녀의 관계가 소원해 질수 있는 시기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가 억압을 받지 않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Bienvenu와 McClain(1970)은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두 변인간에 유의 있는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의사표현이 자유롭다고 여겼고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청소년은 부모의 자신에 대한 수용과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Mckay와 Patrick(1983)은 부모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금지적인 몸짓,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일관성 있게 보냈는가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수용 못하게 하여 결국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길숙(2003)은 부모 모두 자녀와 개방형보다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부정형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부모 모두 문제형 보다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긍정형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긍정형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그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여기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한쪽 부모의 긍정형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보완적이고 완충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김경원, 1988 ; 이경주·신효식, 1990 ; 최인경, 2001)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경희(2005)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중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며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대인관계 성향 중 아동의 사회화에 관련된 사회역활면에 있는 동정수용적 성향과 사교우호적인 성향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양숙(1995)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화시키고 정신건강을 도와주며 자신이 수용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박시현(2004)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이 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효식과 김근화(2004)는 부모-자녀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 시간이 많을 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때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왔다. 이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해순과 강태완(2005)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와 친밀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의미 있는 상관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갈등에 처해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3. 갈등과 갈등해결전략

Murray(1968)는 갈등이란 하나의 인간이 둘 이상의 상호 대립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동기가 부여된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Stoner(1978)는 갈등을 희소자원이나 작업활동을 배분하게 되는 경우, 서로 다른 처지, 목표, 가치, 인지 등이 존재 할 때 조직 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간이나 집단간에 일어나는 대립적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Thomas(1976)는 갈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상대방이 좌절시켰거나 또는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할 때 생기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지현, 2002).

이처럼 갈등은 관련 분야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행동과학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갈등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 경험하는 갈등 즉, 역할갈등(role conflict)과 둘째는 개인간 혹은 사회 단위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관련된 것이다.

갈등은 또한 부정적인 측면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적절한 처리방식에 의해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 축적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됨으로써 갈등해결 방식(conflict resolution styles) 또는 갈등협상전략(conflict negotiation strategi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김지현, 2002).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예외일 수 없기에 청소년기의 시기에 이르면 이러한 갈등은 빈번히 찾아온다. 또한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변인이 바로 '갈등'이다.

개인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Asher et al., 1996, 재인용). 또한 갈등해결은 친구관계를 유지, 존속하는 데에도 중요하다(collins & Laursen, 1994). 결국 친구관계의 성공여부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갈등 해결전략을 사용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이희영·천태복, 2005).

블레이크와 무튼(Blake & Mouton 1964)은 개인간 갈등에 대처하는 5가지 스타일의 개념도식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5가지 스타일은 문제해결형(problem-solving), 수용형(smoo-

thing), 강요형(forcing), 회피형(withdrawal), 공유형(sharing)이다. 이들의 개념도식은 토마스(thomas 1976)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Rahim(1985)의 갈등해결유형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인지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와 타인에 대한 관심정도를 큰 축으로 놓고, 개인의 행동방식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협력형(integrating), 절충형(compromising), 양보형(obliging), 지배형(dominating), 회피형(avoiding)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협력형(또는 협조형)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정확히 알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대안을 도출해 내는 유형으로 문제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경우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양측의 의견을 공동선의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이다. 따라서 협력형의 큰 장점은 단편적 측면에서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상반된 의견이 충돌된 상황에서는 문제를 다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절충형은 자신과 타인의 공통된 관심분야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대안으로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고 외부나 제삼자의 개입, 협상, 또는 표결의 방법을 동원한다. 절충이란 쌍방이 다른 목표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잦은 절충은 오히려 우유부단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절충은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해결의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즉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셋째, 양보(또는 순응)형은 타인의 관심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부분을 양보 또는 포기하는 방식으로 배려를 해 준 후 무엇인가를 보답 받을 수 있을 때 매우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배려형의 장점은 협동을 가능케 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복잡하거나 악화된 문제에 있어서는 부적합하고 중요한 문제점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보형이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넷째, 지배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공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복종을 유도하기 때문에 강압형 이라고도 불려

진다. 지배형은 받아들이기 싫은 해결책이 제시될 때 주로 쓰이며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적합하다. 지배형의 장점은 신속성이고 이로 인해 종종 상대방의 분노와 원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다. 다시 말해, 지배형이란 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해 버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형이다.

다섯째, 회피형은 갈등상태에서 연게 되는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상태에 대처하려 들지도 않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규칙이나 선례에 따라 갈등상태를 다루어 나가지 못하고 단지 그 상황을 피함으로써 벗어나려 한다. 즉,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냉담, 퇴행, 무관심으로 나타나며 문제가 사소한 것이거나 피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회피는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마저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해결전략은 개인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친구의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견 대립과 같은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도 또한 중요하다.

관계의 질에서 갈등의 양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식이 관계의 만족도와 더 관련이 있었다(Collins Laursen, 1992 ; 이은혜 등, 2000, 재인용).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선영(2000)은 친구관계의 질과 아동의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절충 및 협력,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전략을 사용할수록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낮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지배 전략을 사용할수록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김지현(2002)은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와와의 애착 안정성은 회피전략과 지배 전략을 제외한 양보전략과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애착 안정성은 협력 및 절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정미현(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친구간에 갈등을 겪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인 갈등해결전략인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정선영(2001)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아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희영·천태복(2005)은 중학생이 친구 간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피, 양보 및 지배전략 사용 경향에는 변화가 없으나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협력전략 사용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대학생들은 중고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이은혜 등(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희영과 천태복(2005)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마도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모의 양육태도이며, 이는 자녀의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4. 교우만족도

교우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우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간에 사회적인 경험과 발달을 촉진시키며 상호 강화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모델, 준거로서의 역할을 주고받도록 한다. 이러한 주된 역할은 아동이 사회화되어 가며 타인의 관점을 지각하고, 사회적 기준질서와 규범과 문화를 습득해 가는데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임명순, 2004).

교우관계는 때로 갈등을 수반하지만 친구관계에서의 갈등은 보통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우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낸 갈등은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켜 사회인지적 성장과 지적 발달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방향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즉, 우정은 신뢰나 지지의 긍정적 요인뿐 아니라 불일치, 갈등, 대립과 같은 부정적 요인도 포함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교우는 긍정적인 지원을 많이 제공해주는 관계이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의 위험은 내재하기 마련이고, 특히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인 또래친구관계에 갈등과 경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교우관계의 질을 교우관계의 만족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기능적인 접근은 친구관계가 사회·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만족감은 증가할 것이므로 또래관계의 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만족감을 고려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으며 교우관계의 만족감은 교우관계의 유지와 종결의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배종순(1988)은 친구사이에서의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낸 갈등은 긍정적으로 아동에게 문제해결력을 발달시켜 사회적 인지 성장과 지적발달을 가져오게 할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방할 기회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어 새로운 방향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우관계의 만족도에는 2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Berndt, 1984; Bokiwski & Hoza, 1989). 첫 번째는 상호적인 교우관계를 맺는 유무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질적인 면, 특히 지지와 갈등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교우관계가 질과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정과 관심, 교제와 오락, 도움과 지도, 친밀한 의사교환과는 정적상관을, 갈등과 불신은 부적상관을 보여 인정과 관심, 교제와 오락, 도움과 지도, 친밀한 의사교환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갈등과 불신에 대해서는 낮게 지각할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이현정, 1994, 재인용).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이은혜 등, 2000)은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청년들의 친구관계에서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기능과 갈등해결 방법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공평한 갈등해결방식은 친구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친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 연관되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갈등해결방식은 신뢰와 관계없이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기의 만족스러운 친구관계를 예언하는 변인들을 친구의 지원 기능과 갈등해결방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청년기 초기에는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 중기에는 정서적 지원이, 후기에는 도구적 지원이 각각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들이었다. 둘째, 청년기 초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갈등해결방식이, 중기에는 양보와 같은 이타적인 방식이, 후기에는 공평한 방식이 친구의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들이라고 보고 있다(고운주·이은혜, 2001).

최근에는 교우관계의 질적 측면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친구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관계가 보고

되면서 친구관계의 질이 아동의 적응 및 발달의 지배적 기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오원정, 1999, 재인용). 교우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친밀한 교우관계를 갖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기는 자기-노출, 교감 및 자기탐색의 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셋째, 친밀한 교우관계의 결핍은 지원과 사회적 지지라는 중요한 자원의 결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친밀한 친구의 지지와 지원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Parker와 Asher(1993)와 이은혜·고윤주(1999)는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기능적 접근에서의 공통점은 첫째, 교우관계의 질을 다차원인 것으로, 교우관계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교우관계의 긍정적 기능으로는 사회·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원에 관한 것, 교우관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갈등이나 경쟁과 같은 것이다. 둘째, 교우관계의 질은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감도 포함하고 있다. 즉 교우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우에 대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만족감, 모두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친구로부터 얻는 지원이 많을수록, 갈등에 문제에 있어서 공평한 방식으로 해결할수록 그리고 친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수록 만족감은 보다 증가할 것이고 교우관계의 질을 파악하는데 만족감은 유용하다 하겠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1-2]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1-3]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1-4] 청소년이 지각한 교우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2]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3]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4] 청소년이 지각한 교우만족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별, 연령,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수준,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은 교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공주시 소재 여자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급 각 반씩 40명, 대천시 소재 남자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급 각 반씩 40명을 표집하여 총 240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표집한 240명의 청소년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생존한 233명의 청소년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58세이고, 부모님 중 아버지의 연령은 43.96세, 어머니의 연령은 41.17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초졸이 각각 34.2%, 2.2%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역시 고졸이 57.6%로 가장 많았고 대졸, 초졸 이하가 각각 23.4%, 2.6%이었다. 가정의 경제 수준은 절반이상이 '중'(55.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45.5%가 '대체로 화목하다'고 응답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avid. H. Olson과 Howard L. Barnes(1982)가 개발한 PAC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민하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자녀간,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방적 의사소통 10개 문항, 문제형 의사소통 10개 문항 등 2개 하위척도의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총점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이고,



<표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구 분		n	빈 도				
연 령	청소년의 연령	233	최소값	12	최대값	16	13.58(.89)
	아버지의 연령	231	최소값	33	최대값	58	43.96(3.72)
	어머니의 연령	231	최소값	33	최대값	56	41.17(3.80)
성 별 빈도(%)	남	115	49.4				
	여	118	50.6				
학 년 빈도(%)	1학년	77	33.0				
	2학년	78	33.5				
	3학년	78	33.5				
교육수준 빈도(%)	아버지	초졸	5	2.2			
		중졸	16	6.9			
		고졸	104	45.0			
		대졸	79	34.2			
		대학원졸 이상	27	11.7			
	어머니	초졸	6	2.6			
		중졸	19	8.2			
		고졸	133	57.6			
		대졸	54	23.4			
		대학원졸 이상	19	8.2			
가정 경제 수준 빈도(%)	하	6	2.6				
	중하	34	14.6				
	중	130	55.8				
	중상	52	22.3				
	상	11	4.7				
가정의 분위기 빈도(%)	전혀 화목하지 않다	3	1.3				
	대체로 화목하지 않다	11	4.7				
	보통이다	58	24.9				
	대체로 화목하다	106	45.5				
	매우 화목하다	55	23.6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1986년 수정 보완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개(문항번호; 1, 2, 3, 4, 5) 부정적 문항 5개(문항번호; 6, 7, 8, 9, 10)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점의 범위는 10~50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뜻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81로 나타났다.

3)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ahim(1983)의 갈등

관리 행동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갈등해결전략은 5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요인당 5점 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3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략의 총점의 범위는 3-15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각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뜻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협조형, 배려형, 지배형, 회피형, 타협형이 각각 .67, .52, .60, .60, .65로 나타났다.

4) 교우만족도

교우만족도는 Parker와 Asher(1993)가 개발한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 Mendelson과 Aboud(1999)의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를 이은혜와 고윤주가 변안한 척도 등에 기초하여 교제의 즐거움, 교우로부터의 도움, 교우에 대한 친밀감, 교우에 대한 신뢰, 교우관계의 안정성, 교우관계를 통한 정서적 안정 등 총 6개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1점)-'매우 만족'(5)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총점의 범위는 6-30점이고, 총점이 높을

수록 교우관계에 만족함을 뜻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교우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 연령,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의 전반적 경향과 성차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의 전반적 경향과 성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은 평균값이 129.84로 보통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유의미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역시 보통수준(32.95)이며,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t=3.09, p<.01$ ).

청소년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면, 양보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협력형, 타협형, 지배형, 회피형 순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갈등해결전략에

<표 2>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수준, 자아존중감,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교우만족도의 전반적 경향과 성차

(N = 233)

연구 변인	구 분	범 위	평균(표준편차)	t 값	
부모-청소년 자녀 의사소통수준	남(n=115)	55~194	126.91(26.47)	1.61	
	여(n=118)		132.69(28.35)		
	전체 233	129.84(27.54)			
자아존중감	남(n=115)	17~50	31.67( 5.94)	3.09**	
	여(n=118)		34.20( 6.56)		
	전체 233	32.95( 6.38)			
갈등해결전략	협력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3~15	남(n=115)	9.22( 2.55)	3.93***
			여(n=118)	10.45( 2.22)	
		전체 233	9.84( 2.46)		
	양보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4~15	남(n=115)	9.51( 2.12)	2.97**
			여(n=118)	10.27( 1.77)	
		전체 233	9.90( 1.98)		
	타협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3~15	남(n=115)	9.06( 2.32)	3.13**
			여(n=118)	9.97( 2.10)	
		전체 233	9.52( 2.25)		
	지배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3~15	남(n=115)	8.72( 2.39)	.31
			여(n=118)	8.81( 2.19)	
		전체 233	8.77( 2.28)		
	회피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3~15	남(n=115)	8.46( 2.31)	.85
			여(n=118)	8.73( 2.49)	
		전체 233	8.60( 2.40)		
교우만족도	6~30	남(n=115)	20.99( 4.89)	3.97***	
		여(n=118)	23.42( 4.45)		
	전체 233	22.22( 4.82)			

\*\* $p<.01$ , \*\*\* $p<.001$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협력형, 타협형, 양보형 전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93, p<.001, t=3.13, p<.01, t=2.97, p<.01$ ). 그러나 지배형과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사용수준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양보형, 타협형, 지배형, 회피형의 순으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양보형 갈등해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협력형, 타협형, 지배형, 회피형의 순으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였다. 교우간 갈등상황에 놓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전략 중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일하게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을 가장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교우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교우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표 3>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수준, 자존감,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교우만족도의 연령차 (N = 233)

연구 변인	구 분	평균(표준편차)	F 값
부모-청소년 자녀 의사소통수준	12세(n= 19)	124.63(36.15)	1.19
	13세(n=102)	133.61(29.24)	
	14세(n= 75)	127.75(23.04)	
	15세(n= 33)	128.06(26.18)	
	16세(n= 4)	112.50(20.55)	
자아존중감	12세(n= 19)	31.53( 6.69)	2.15
	13세(n=102)	33.94( 6.28)	
	14세(n= 75)	31.64( 6.24)	
	15세(n= 33)	34.06( 6.42)	
	16세(n= 4)	30.00( 6.06)	
협력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12세(n= 19)	8.37( 2.34)	2.15
	13세(n=102)	9.90( 2.37)	
	14세(n= 75)	10.01( 2.44)	
	15세(n= 33)	10.21( 2.57)	
	16세(n= 4)	9.00( 3.65)	
양보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12세(n= 19)	9.42( 2.04)	1.43
	13세(n=102)	9.90( 1.94)	
	14세(n= 75)	9.71( 2.08)	
	15세(n= 33)	10.58( 1.66)	
	16세(n= 4)	10.00( 2.94)	
갈등해결 전략 타협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12세(n= 19)	8.84( 2.12) ab	2.78*
	13세(n=102)	9.33( 2.29) ab	
	14세(n= 75)	9.96( 2.09) b	
	15세(n= 33)	9.79( 2.27) b	
	16세(n= 4)	7.00( 2.58) a	
지배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12세(n= 19)	8.89( 2.56)	.55
	13세(n=102)	8.70( 2.08)	
	14세(n= 75)	8.91( 2.68)	
	15세(n= 33)	8.79( 1.76)	
	16세(n= 4)	7.25( 1.89)	
회피형 갈등해결 전략 사용수준	12세(n= 19)	8.68( 2.31)	1.25
	13세(n=102)	8.30( 2.36)	
	14세(n= 75)	8.87( 2.64)	
	15세(n= 33)	8.61( 2.05)	
	16세(n= 4)	10.50( 1.00)	
교우만족도	12세(n= 19)	20.74( 5.18)	1.05
	13세(n=102)	22.05( 5.04)	
	14세(n= 75)	22.52( 4.67)	
	15세(n= 33)	23.18( 3.90)	
	16세(n= 4)	20.25( 6.95)	

\* $p<.05$

a, b 문자는 Scheffe 검증결과,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임.

나타났다( $t=3.97, p<.001$ ).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와의 관계에 보다 만족하고 갈등해결 시에도 긍정적인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의 연령차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의 연령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협형 갈등해결전략을 제외하고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 자아존중감, 갈등해결전략, 교우만족도에서 유의한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연령차가 나타난 타협형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15세 청소년이 16세 청소년에 비하여 교우와의 갈등발생 시 타협형 갈등해결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며, 12-13세의 청소년은 14-15세보다는 다소 적게, 16세보다는 다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연령,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 자아존중감, 갈등해결 전략이 교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우만족도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 연령,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수준, 자아존중감, 갈등해결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청소년의 성별, 연령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을 투입하였으며, 다음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을 투입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에서 청소년의 성별, 연령이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교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의 성별( $\beta=.25, p<.001$ )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은 청소년 교우만족도 변량의 7.1%를 설명하였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 교우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 = 233)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성별	2.416	.612	.251***	2.058	.575	.214***	1.713	.570	.178**	1.346	.554	.140*
연령	.459	.343	.085	.590	.322	.109	.589	.314	.109	.439	.301	.081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				6.105E-02	.010	.349***	4.324E-02	.011	.247***	2.317E-02	.012	.132*
자아존중감							.177	.050	.234***	.105	.049	.139*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178	.155	.091
양보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424	.161	.174**
타협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246	.156	.115
지배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101	.129	.048
회피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379	.124	-.189**
R <sup>2</sup>	.071			.191			.233			.334		
F for change in R <sup>2</sup>	8.807***			33.865***			12.585***			6.781***		

\* $p<.05$ , \*\* $p<.01$ , \*\*\* $p<.001$   
 주: 1) 성별: 1 = 남, 2 = 여

모형 2에서는 1단계 모델에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이 12% 향상 되었으며, 독립변인들은 청소년의 교우만족도 변량의 19%를 설명해 주었다.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수준( $\beta=.35, p<.001$ ), 그리고 다음으로 성별( $\beta=.21, p<.001$ )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교우만족도가 높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독립변인들은 청소년의 교우만족도 변량의 23%를 설명해 주었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우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수준( $\beta=.25, p<.001$ ),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beta=.23, p<.001$ ), 성별( $\beta=.18, p<.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교우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4단계에서는 5가지 갈등 해결 방식, 즉 협력형, 양보형, 타협형, 지배형, 회피형 갈등 해결전략 사용수준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이 10% 향상되었으며, 독립변인들은 청소년의 교우만족도 변량의 33%를 설명해 주었다.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피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beta=-.19, p<.01$ )이었고, 다음으로 양보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 $\beta=.17, p<.01$ ), 성별( $\beta=.14, p<.05$ ), 자아존중감( $\beta=.14, p<.05$ ),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수준( $\beta=.13, p<.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교우관계에서 회피형 갈등해결 전략을 덜 사용하고, 양보형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교우관계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협형, 협력형, 지배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은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교우관계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피형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교우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당면한 갈등상황을 벗어나려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 양보하여 갈등을 풀어아가는 것이 교우관계에서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갈등해결전략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에 대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및 교우만족도의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와의 관계에 보다 만족하고 갈등해결 시에도 긍정적인 전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며, 타협형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에서만 유일하게 연령차가 나타났다. 이희영과 천태복(2005)은 회피, 지배, 양보 전략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협력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배형 전략과 회피형 전략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협력형 갈등해결 전략 또한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일한 대상인 중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음에도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갈등해결전략의 측정도구가 다르며,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다양한 발달단계의 대상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김춘례(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반면,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국길숙, 2003; 김은주, 2002; 최은정·김금순, 2001)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갈등해결전략사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양보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협력형, 타협형, 지배형, 회피형 전략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여학생은 협력형 전략을, 남학생은 양보형 갈등해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갈등해결전략 중에서 양보형 갈등해결전략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 사료된다. 자신만은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갈등해결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양보를 통해 교우와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 전략은

학교라는 집단 사회에서 '왕따'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갈등해결 방식의 성차에 대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절충 및 협력과 회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배선영(1999)의 연구결과나 남아가 여아보다 갈등해결 방식에서 '지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지현, 2002; 이은혜 등, 2000; 정선영, 2000)과 불일치한다. 오히려 갈등해결 방식 중 타협형, 협력형, 양보형 갈등해결 전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사용하지만, 지배형 전략과 회피형 전략의 사용에서는 유의미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 회피형 전략을 상대적으로 가장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신체적·사회적으로 빨리 성숙하고,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절충 및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이은혜 등, 2000)결과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이희영·천대복, 2005)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중 정선영(2000)과 배선영(1999)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은혜 등(2000)은 본 연구와 같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를 포함하여 갈등해결전략 사용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마다 대상의 상이함과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측정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시기에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에 관계없이 교우관계에서 회피형 갈등해결 전략을 덜 사용하고, 양보형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교우관계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협형, 협력형, 지배형 갈등해결전략 사용수준은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Hoffman(1984)은 부모와 대화할 때,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느끼므로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국길숙, 2003).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의 사회화를 돕고, 또래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김미호, 1989; 김영미·심희옥, 2000; 방문희, 1991; 심혜영, 1993)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감해 준다면, 부모-자녀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증진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와 교우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상대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이고, 다음으로 양보형 갈등해결전략의 사용, 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교우관계에서 회피형 갈등해결 전략을 덜 사용하고, 양보형 갈등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교우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회피, 양보, 협력 및 절충전략이 아동의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는 배선영(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청소년의 교우관계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피형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교우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보다 당면상황만을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교우에 대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 양보하여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교우관계에서 보다 만족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또한 양보해결전략이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예언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고윤주·이은혜, 2000) 결과와도 불일치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며, 자녀 교육에서도 양보가 권장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즉 교우만족도에 양보해결전략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양보를 권장 받으므로써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 교우를 배려해 주는 것을 청소년 자신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느끼고 스스로 옳은 행동이라고 여기거나, 반대로 자신이 교우로부터 양보를 받을 경우에도 요구한대로 따라 주는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친구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며 양보하는 정도와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은혜 등(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양보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교우간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때, 부정적인 감정 또한 생길 수가 있다.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양보하는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교우간에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가감정이 생길 수 있는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관한

추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청소년기의 특성이나 개인의 성격에 맞는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학교 교육 현장이나 상담을 통해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연령에 관계없이 교우관계에서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고 양보형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와 개방적, 긍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교우관계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우만족도에 양보형 갈등해결전략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친구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며 양보하는 정도와 만족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이은혜 등, 2000)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우만족도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양보전략을 사용할수록 만족감은 높으나 장기적으로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 또한 생길 수 있으므로 양가감정이 있는 친구관계의 특징과 원인까지 규명해 주는 추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충남 공주와 대천 지역에 있는 2개의 중학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사회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우관계에만 국한시켜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았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동성 친구, 이성친구와의 관계로 나누어 좀 더 다양하게 관계대상을 확대하여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우만족도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 연령, 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수준, 자아존중감, 갈등해결 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는데, 교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해결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관계 분석에만 그치지 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갈등해결전략 사용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교우관계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갈등해결전략 이외에 갈등의 종류나 갈등의 수준도 교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들 변인을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해결전략과 함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 교우간 갈등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접수일 : 2007년 03월 06일
- 심사일 : 2007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5월 08일

【참 고 문 헌】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여가(199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송이(2001).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현(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박시현(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 체계 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의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또래관계 질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선영·이은혜(2001).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5, 80-88.

백운미·유미숙(2006). 부모-자녀 축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3), 85-98.

신효식·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47-58.

연문희(1983). 청소년 이해와 지도. 창학사.

이선영(2001).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과 학교적응.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혜·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1.

\_\_\_\_\_ (2000). 대학생의 친구관계에서 친구의 지원과 갈등 해결 방식이 친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 미치는 영향. *교육학 연구*, 38(2), 149-167.
- 이은혜 · 고윤주 · 오원정(1999).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 연구*, 37(3), 201-220.
- \_\_\_\_\_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_\_\_\_\_ (2001).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갈등 해결 방식 및 친구 관계망간의 구조모델: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25-42.
- 이해강(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 적응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 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정선영(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 · 김진호(2004).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509-539.
- 한제인(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따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84-211.
- Barnes, H. L.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6-447.
- Berndt, T. J. & Keefe, K. A.(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ienvenu, M. I. & McLain, S.(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5), 344-345.
- Chung, T.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 Collins, W. A. & Laursen, B.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197-209.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Felson, R. B. & Zielinski, M. 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Fonzi, A., Schneider, B. H., Tari, F., & Tomada, G.,(1997). Predicting children's friendship status from their dynamic interaction in structured situation of potenti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68(3), 496-506.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Hammock, G.s., Richardson, D. R, Pilkington, C. J., & Utley, M.(1990). Measurement of conflict in social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77-583.
- Jorgenson, D. E.(1985). Transmitting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replication and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males and females. *Soc. Behav. Person.* 13, 109-117.
- Laursen, B. and Collins, W. A.(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 Bull.* 115, 197-209.
- Lindeman, M., Harakka, T., Keltikangas-jarvinen, L.,(1997).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Reactions to Situations: Aggression, Prosociality, and Withdrawa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3), 339-351.
- Marla Reese-Weber.(2000).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onflict Resolution Skills with Sibling: Associations with Interparental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6), 697-711.
- Rahim, M. A.(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eese-Weber, M., & Bartle-Haring, S.(1998).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family subsystem an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735-752
- Rose, A. J. & Asher, S. R.(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 with 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79.
- Rubenstein, J. L. & Feldman, S. S.(1993). Conflict-resolution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ntecedents and adaptional correl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41-66.



Selman, R.L., Schultz, L. N., Nakkula, M., Bae, D., Watts, C. & Richmond, J., Friendship and figh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529-558.

Susan M. M., Ann C. C. (2003). Conflict Resolution: Links With Adolescents' Family Relationships and Individu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24(6), 715-736.